

1/27(수) 사사기 묵상 45

사사기 16:7-22

삼손(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들릴라는 큰 재물의 욕심에 삼손과의 애정을 이용하여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결국은 그의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망한 이유

오늘 본문 21절은 삼손의 안타까운 최후를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늦 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멧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나실인 그리고 사사가 되었던 삼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두가지로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로 삼손의 교만 때문입니다.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사자를 찢어 죽이고 여우 삼백 마리를 잡기도 하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 천 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일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만약 자신의 힘과 더불어 이스라엘 각 지파 군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제 아무리 강한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사사로서 이스라엘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의심 많고 소심했던 사사 기드온과 같은 지도자들은 철저한 계획과 동족들의 도움을 받아 적군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교만으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잠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상 블레셋은 대대로 사무엘과 사울,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삼손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그의 부모가 살아 생전에는 삼손에게 영적 충고를 해주었지만 그 외에 삼손에게 영적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더이상 없었습니다(**삿 14:3상,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은 사사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그는 모든 일에 있어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특히 사사기의 본문은 삼손이 만난 세 명의 여자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들릴라도 삼손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여자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잠 31: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만약 들릴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면 그녀는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로 부터 구원했을 것입

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믿는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지 않고 그의 육신의 안목과 정욕대로 연애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삼손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질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 애정에 못 이겨 자신의 비밀을 어리석게도 모두 말하게 됩니다(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 후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이 밀리고 그의 힘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영적 방심이 결국 큰 화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삼손처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에 많은 은사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 학파, 정통 유대인 등등). 그러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 학자들은 대체로 육체적 질병(간질 또는 안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의 육체적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씩이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면서 그의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바울은 힘들었겠지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있어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가지 단점과 연약함 그리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네 은혜가 족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코로나를 위한 기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돌연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어려움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위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부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나요엘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